

치매 환자에서 삼키기 변화와 장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박윤길

DRTLC@yuhs.ac

치매 환자에서는 여러 형태의 연하(삼킴)장애가 발생하는데 전반적인 유병률은 13%~57% 이나 중기와 말기 치매에서는 90% 정도의 환자에서 연하장애가 발생한다. 이로 인한 흡인(aspiration)이 28.6%에서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으며, 폐렴은 가장 흔한 치매 환자의 사망 원인으로 되어있다. 치매 초기에는 음식물에 대한 실인증(agnosia)이 발생하여 음식물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저하되며 이와 더불어 음식물 섭취와 삼키는 동작의 실행증(apraxia)이 동반 될 수 있다. 중등도 치매에서는 식사습관과 좋아하는 음식의 변화가 생기고 종종 치매환자는 연하장애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많은 치매환자에서 구강기와 인두기의 변화가 주로 나타나는데 실행증으로 인해 식사를 시작하려는 구강 운동에 제한이 생기고 도구를 사용하여 식사를 하기 어려우며 입에 음식을 머물고만 있게 되는 연하장애가 발생한다. 이 외에도 혀의 운동장애, 후두와 인두의 운동 장애 등 생리학적 이상이 나타나 연하장애가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는 대뇌에서 연하작용을 관장하는 부위들의 기능이 저하와 자율 신경기능 장애, 부적절한 식사자세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치매 환자에서 연하장애는 보통 천천히 진행되나 질병 자체가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연하재활치료가 한계에 다다라 환자 스스로 음식 섭취가 어렵게 되면 영양결핍이 발생하기 전에 관급식(tube feeding)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